

3·1 운동, 100년의 기억들

이기훈(李基勳 연세대학교 사학과)

머리말

역사적 사건으로 3·1 운동의 중요성과 의의는 지난 100년 동안의 많은 논의와 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결정적 사건으로서 3·1 운동의 역사성은 당대의 그 순간보다, 이후 한국인들의 기억 속에서 3·1 운동이 어떻게 인식되고 재현되었는지를 통해 더 잘 드러난다. 이미 한국사 (또는 조선사)는 남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등 아시아와 미국, 캐나다, 유럽의 각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그 역사상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3·1 운동은 이런 다양한 역사상 가운데서 드물게 함께 공유하는 공통의 기억 중 하나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글에서는 3·1 운동의 기억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했는지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참여자들의 기억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념

3·1 운동은 특히 청년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젊은 세대들은 노동자, 농민 등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강대한 일제의 폭력에 대한 저항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민족’을 공감했다. 강력한 저항의 공동체로서 민족을 경험했고, 민족의 기반이 되는 민중의 실체를 발견했다. 이것은 이 젊은이들이 이후의 역사적 진보를 상상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다. 운동의 경험은 일회적인 시위 참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서울에서 시위에 참여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스스로 시위를 조직했다. 도피와 망명, 투옥과 옥중 투쟁을 직접 겪거나 가족이나 친지들의 경험을 지켜봤다. 3·1 운동은 이들 청년 세대들이 사회적·역사적 상상력의 실제적 근거가 되었다.

3·1 운동 당시 경성고등보통학교 졸업반으로 운동에 참여했던 박헌영이나 강화도에서 만세 시위에 참여한 조봉암 등은 이후 사회주의 운동의 지도자가 되었다. 어린이 운동과 아동문학의 선구자가 되었던 방정환, 한국 근대 문학사의 대표적인 소설가 염상섭도 3·1 운동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봉암은 해방 이후 자신의 삶에서 삼일 운동을 이렇게 회고했다.

진심으로 말하면, 3·1 운동이 터지고 내가 잡혀서 감옥으로 갈 때까지는 국가와 민족이 어떻다는데 대해서는 아무 새악도 없었고, 단순히 일본놈이 우리 조선 사람을 천대하고 멸시하는 데 대한 불만과 불평이 있었던 청년일 따름이었다 ...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서부터 비로소 많은 것을 배웠다. 세상에 대한 눈이 떠졌고 애국심이 불타게 됐다. 나를 붙잡아서 감옥으로 보내 준 일본 놈은 나를 일생을 통해서 일본 제국주의와 싸운 애국투사가 되게 한 공로자였다¹⁾

1) 조봉암, 「내가 걸어온 길」, 『희망』 2월호, 1957. (정태영 외 편, 『죽산 조봉암 전집』 1, 세명서관,

이들 세대에게 3·1 운동은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이미지였다. 그것은 단지 세대적 경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운동의 시대적 특징과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기도 했다.

특히 이들이 3·1 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조선 민족’의 자각과 민족해방의 진전에 그치지 않는 세계사적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 무렵 민족해방운동에 참여한 운동가들은 대부분 민족 해방을 동아시아적 차원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3·1 운동도 이런 관점에서 해석했다.

1920년대 『동아일보』의 상하이 주재 통신원과 특파원으로 활약한 조덕진(趙德津)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3·1 운동에 참여한 뒤 상하이로 망명하여 1919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비서실장으로 활동했으며, 1921년에는 신익희 윤보선과 함께 신규식과로 분류되었고 상하이 한인유학생회나 교민단에서도 활발히 활동했다. 1923년 임시의정원의원으로 이승만 탄핵에 참여했고, 1924년 상해청년동맹 결성을 주도했다.²⁾ 그는 1925년 상하이의 5·4 운동 기념식을 본 소감을 이렇게 썼다.

내가 황해 저편에서 친지를 크게 혼드는 3·1운동을 구경하고 상해에 와 있는 지 얼마 지나지 않은 5월 4일 아침에 서문 밖 공공체육관이라는 데서 남녀 학생 수만 명이 구름처럼 모여서 손마다 “否認二十一條”, “還我山東”, “抵制日貨”, “打倒東洋小鬼”, “反對安福賣國政府” 등을 쓴 깃발을 들고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 몇 달 전 경성에서 참여했던 그 운동과 행렬과 똑 같은 방식과 열정인 것을 느꼈는데, 그것이 곧 지금 중국 사람들이 떠드는 5·4운동으로 그 동기도 우리의 3·1운동에 자극되어 北京大學의李大釗 陳獨秀 씨들이 중심이 되어 발기한 것이다.³⁾

조덕진의 서술에는 일부 오류가 있다. 5·4 운동의 전모를 잘못 파악하고 있었고, 3·1 운동의 영향 또한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핵심은 조덕진이 3·1 운동이 민중운동으로서 역사적 선도성을 가진 것이며, 나아가 “3·1운동과 5·4 운동을 통해 두 나라의 혁명은 거울처럼 서로 비춰주는 관계”라고 보았다는 점이다. 1920년대부터 3·1 운동 참여자들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사적 맥락 속에서 운동의 역사성을 이해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회고가 아니라, 중국의 국공합작에 자극받은 민족 유일당 운동의 원동력으로서 당대 민족 운동의 전략적 지침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한편 3·1 운동 직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기 정당성의 근거를 3·1 운동에서 찾았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고 서울과 지방이 함께 호응하여 서울에서 의거를 일으킨 지 30여 일”에 평화적 독립을 대내외에 다시 찾고 국민의 신임을 얻어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가 “항구 완전한 자주독립”을 자손 만민에게 대대로 전하기 위해 임시헌장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출

1999)

2) 이기훈, 「1920년대 『동아일보』의 중국 인식 - 계몽과 혁명,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 시각의 부침과 교차」, 『동방학지』 178, 2017 및 최선웅, 「1924~1927년 상해 청년동맹회의 통일전선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한국근현대사연구』 44, 2008, 참조

3) 上海에서 春艇生, 「中國의 五四 紀念」, 『동아일보』 1925. 5. 13(1).

발부터 3.1 운동을 자신의 역사적 근거로 삼았던 것이다. 이후 9월 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법」 전문도 ‘3·1 독립선언서’의 첫 구절을 그대로 인용했다.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매년 3월 1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기념식을 거행함으로써 국가의 공식적 기원으로 삼고자 했다. 또 임시정부 산하에 임시사료편찬회를 두고 1919년 9월 『한일관계사료집(韓日關係史料集)』을 편찬하였는데, 이 사료집의 제4부가 3·1 운동과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까지 다뤘다. 이어 1920년 박은식이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 1922년 『한일관계사료집』 편찬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김병조가 『한국독립운동사략 상편』을 편찬하였다.⁵⁾ 이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3·1 운동 관련 역사서들은 일제의 왜곡 선전으로 가려진 3·1 운동의 실상을 한국인의 주체적인 시각에서 통계와 보고 등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3·1 운동을 최초로 ‘역사’ 화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해방 이후~1960년대 남북한의 3.1 운동 인식

해방 직후 좌우익을 막론하고 3.1 운동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때부터 좌우익은 3·1 운동에 대한 매우 다른 역사상을 그리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계열의 3·1 운동 인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조선과학자동맹이 1946년 발간한 『조선해방과 삼일운동』과 1947년 박헌영의 저작으로 발표된 『삼일운동의 의의와 그 교훈』이다.⁶⁾ 이 저작들은 3·1 운동을 민족해방운동 과정에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투쟁의 일환이며, 일부 친일파를 제외한 전인민 투쟁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역사적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회주의자들은 3·1 운동이 자연발생적 대중운동으로 33인의 민족대표의 지도부가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으며, 토지 개혁 등 반봉건적 과제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완수되지 못한 역사적 과제를 해방 이후의 사회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것이었다.⁷⁾

반면 우익은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직접 연결시켜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주장했고, 일부에서는 해방 정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대로 추대하여 정부를 구성하자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⁸⁾ 그러나 임시정부 봉대론은 우파에서도 이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으며, 심지어 1948년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 과정에서도 초안에도 임시정부 법통론은 등장하지 않았다. 원래 헌법 전문의 초안은 기미혁명 또는 삼일혁명의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했다. 그런데 제헌국회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임시의장이

4) 윤대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3·1절 기념과 3·1운동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7, 2017

5) 최우석, 「3.1 운동, 그 기억의 탄생-『한일관계사료집』, 『한국독립운동지혈사』, 『한국독립운동사략 상편』을 중심으로-」, 『서울과 역사』 99, 2018

6) 조선과학자동맹, 『조선해방과 삼일운동』, 청년사, 1946

이노미, 『삼일운동의 의의와 그 교훈』, 1947 이노미(而丁)은 박헌영의 필명 가운데 하나다. 일부 연구자는 이 책을 실제 저술은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경제사학자인 전석담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하지만, 박헌영이 저작 내용에 실제로 책임을 졌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어느 경우에도 당시 조선공산당 계열의 공식적인 3·1 운동 평가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7) 박종린, 「해방 직후 사회주의자들의 3·1 운동 인식」, 한국역사연구회 3·1 운동100주년기획위원회 엮음, 『3·1 운동 100년 1 메타역사』, 휴머니스트, 2019

8) 김정인,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성 인식의 정치성과 학문성」, 한국역사연구회 3·1 운동100주년 기획위원회 엮음, 위의 책

었던 이승만이 직접 제안하여 대한민국이 3·1 운동으로 건립한 임시정부를 계승한 국가임을 헌법 전문에 밝히게 되었다. <3·1 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법통론의 체계가 공식적으로 확립된 것이다.

1960년대 북한에서는 3·1 운동을 ‘인민봉기’로 규정하는 시각을 확립했다. 민족 부르주아의 한계를 더욱 강조하는 반면, 노동자, 농민의 활약을 중시하게 되었다. 특히 노동자 계급의 지도가 관찰되지 않아 반봉건 투쟁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북한의 3·1 운동 서술은 196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는 러시아 혁명의 영향, 중국 5·4 운동과 관련성을 모두 강조하는 등 운동의 국제성을 주목했다. 그러나 점차 주체적 시각이 강화되면서 평양과 김일성 가계 중심의 시각이 강화되었고, 러시아 혁명이나 중국 운동과 관계 등은 잘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⁹⁾

남한에서도 본격적인 조사와 학술적 연구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3·1 운동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각 학문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조사 연구가 진행되었고, 사료들이 다각적으로 수집되고 검토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운동 참여자들의 회고와 목격담이 수집되었으며 이 증언들은 최근까지 지역 3·1 운동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1969년 『3·1 운동 50주년 기념 논집』이 간행되었다.¹⁰⁾ 경제사, 식민정책사, 사상사, 운동사, 문학사 등 거의 모든 한국학의 영역에서 3·1운동의 전개와 영향에 대한 기초적 연구 진행. 당시 해외 운동, 종교계 동향, 학생과 여성, 노동자, 농민, 국내 운동의 전개 과정,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의 대응, 문학사적 의미까지 검토했다. 이를 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3·1 운동의 교과서적인 역사상이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1 운동 50주년이라는 시점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지만, 1969년의 학술적 성과는 1960년대 식민사학을 극복하고 ‘민족사’를 체계화하려는 한국 역사학계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었다. 1960년대 한국의 역사학계는 민족사를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속에서 파악하려는 내재적 발전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한국의 역사에 고대-중세-근대로 전형적 발전 모델을 적용하려는 ‘시대구분논쟁’이 진행되기도 했다. 3·1 운동사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근대를 향한 진보와 독립의 역사적 주체로서 ‘민족’ 상을 체계적이고 학술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3·1 운동을 5·4 운동을 비롯한 아시아 약소 민족 해방 운동사의 관련 속에서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것도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후 3·1운동에 대한 민족주의적 해석이 과도해지면서 아시아 민족 운동에 미친 영향을 과대 평가하고, 시기적으로 앞선 것을 역사적 인과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하게 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¹¹⁾ ‘세계사적 의의’에 대한 과대평가는 실제 세계사 속에서 운동의 의미를 흐리게 한다. 3·1 운동의 역사적 의의 중의 하나는 세계사 속에서 민족해방의 시대성을 함께 형성했다는 것이 아닐까?

9) 홍종욱, 「북한 역사학계의 3·1 운동 연구」, 한국역사연구회 3·1 운동 100년주년기획위원회 엮음, 앞의 책

10) 동아일보사, 『三一運動 50周年 紀念論集』, 1969

11) 김학재, 「3·1 운동의 한세기 : 20세기의 비전과 한반도 평화」, 이기훈 기획, 『촛불의 눈으로 3·1 운동을 보다』, 창작과 비평, 2019

3. 1980년대 민중사학과 3·1 운동 70주년

이후 남한 학계에서는 안병직 신용하 등이 민족자본가, 노동자, 농민 등 계급 계층론적 범주를 통해 3·1 운동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다.¹²⁾ 조동걸은 현지 답사와 증언 채록, 일제 재판 기록 등 다양한 자료들을 동원하여 지역 3·1 운동을 충실히 복원했다. 이런 성과들은 3·1 운동의 구체적 과정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심화시켰다.¹³⁾

그런데 1970~80년대 대학가를 중심으로 학문의 현실 참여 요구가 확산되면서 3·1 운동 연구도 중대한 변화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3·1 운동 70주년을 맞이하는 1989년은 한국에서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 한국사 연구에서도 민주주의의와 민족 통일의 실현을 모색하는 현실 참여적 시각이 확대되었고, 민족 해방운동의 주체로서 민중을 강조하는 ‘민중사’의 시각에서 연구가 확산되고 있었다. 당시의 신진 연구자들은 분단 이후 남한 학계에서 배제되다시피 했던 계급주의적 민중운동론의 시각에서 3·1 운동을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한국역사연구회와 역사문제연구소가 70주년 기념 논문집으로 발간한 『3·1 민족해방운동 연구』는 3·1 운동을 근현대의 역사적 주체로서 ‘민중’ 운동으로 파악하며, 6월 항쟁의 역사적 성취와 한계를 비교했다. 민족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의 창출을 넘어, 현실의 사회적 운동에 기여하는 전략적 상상력의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이다.¹⁴⁾ 이런 관점에서 3·1 운동은 민족해방운동 전개의 한 분기점이었다. 이전의 민족해방운동이 3·1 운동으로 모두 수렴되지만 3·1 운동을 계기로 부르주아와 민중의 운동이 분리되며 민중이 민족운동의 주력군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었다.¹⁵⁾

이런 연구를 토대로 1990년대 남한 학계에서는 대체로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지식인 중심에서 민중 중심으로 주체가 전환하며, 도시에서 농촌으로 공간이 변화하고, 비폭력에서 폭력으로 투쟁양상이 전환한다는 단계론적 혹은 성장전화론적 3·1운동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다. 이후 3·1 운동에 대한 지역적 사례 연구들은 대부분 이런 관점에서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4. 90주년과 100주년 - 포스트 모던 시대의 대중과 역사

1990년대 한국의 역사학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서서히 포스트모던 인문학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계급론적이고 결정론적 진보의 역사상에 대해 다양한 새로운 접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경향은 역사학 내부보다 문학, 사회학, 매스 커뮤니케이션 등 외부의 학문에서 시작하여 역사학으로 파급되었다. 2009년 3·1 운동 90주년에도 다양한 저작들이 발간되었지만, 다양한 역사적 ‘주체’라는 관점에서 3·1

12) 안병직, 「삼일운동에 참가한 사회계층과 그 사상」, 『역사학보』 41, 1969
신용하, 『3·1 독립운동의 사회사』, 현암사, 1984

13) 정용욱, 「3·1 운동사 연구의 최후근 동향과 방향성」, 『역사와 현실』 110, 2018

14) 지수걸, 「3·1 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오늘의 교훈」,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3·1 민족해방운동 연구』, 청년사, 1989

15) 위의 책 2편 <3.1 운동의 전개양상>에 수록된 논문들 참조. 1970년대 일본의

운동을 파악한 『1919년 3월 1일에 묻다』가 주목받았다.¹⁶⁾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이 기획한 이 논문집은 ‘민족’적 주체가 민중을 중심으로 이미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내부를 가지며 형성되는 중층적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 책의 제2부 <주체와 제도>는 농민, 학생, 젠더, 지역공동체 등 다층적인 주체들이 다양한 제도와 상호 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추적하고자 했다. 또 이전의 민족운동사, 민중운동사적 인식에서 탈피하여 동아시적 차원에서 이념의 도입과 확산 속에서 3·1 운동의 기원과 전파 과정을 탐색하려 했으며, 이후 한국 현대사에서 3·1 운동의 이미지 형성을 <기억과 재현>이라는 주제로 객관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이후 역사학과 문학, 사회과학에서는 주로 3·1 운동을 역사적 기억과 재현, 문명 인식의 사상사 측면 등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려는 연구들이 많이 등장했다. 특히 문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학자들은 3·1 운동을 전후한 시기 용어와 개념의 변화, 새로운 관념의 도입과 확산 등을 개념사, 문화사, 심성사적으로 해석하려 했다.¹⁷⁾

2016~2017년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킨 ‘촛불항쟁’의 경험은 3·1 운동 해석에서 두 경향을 초래했다. 많은 연구자들이 『1919년 3월 1일에 묻다』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다원적 주체와 기억의 다양성이라는 문제의식을 더욱 심화시키고자 했다. 이전의 계급계층론이나 세대론 등 사회적 주체 형성의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치적 주체들이 등장했으며, 정치적 자기 견해의 표출 방식이나 운동의 지속 방식 또한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았다. 이런 역사적 경험은 기존의 3·1 운동 이해가 지나치게 단선적이었다는 반성을 더욱 고조시켰다.

대표적인 진보적 역사학 연구단체인 한국역사연구회의 3·1 운동 100주년 총서는 이런 면에서 매우 흥미롭다. 2016년부터 활동한 한국역사연구회 3·1 운동 100주년기획위원회는 다양한 주체와 시선으로 3·1 운동을 재현하고 기존의 민족주체의 시각에서 벗어난 경계 넘기, 다층적이고 문화사적 시각에서 3·1 운동사의 재구성을 시도했다. 이들은 다양한 세대와 연구 분야의 연구자 39명을 동원하여 메타 역사, 사건과 목격자들, 권력과 정치, 공간과 사회, 사상과 문화 등 5권의 3·1 운동 100주년 총서를 간행했다.¹⁸⁾ 이 총서는 30년 전 한국역사연구회가 주도한 『3·1 민족해방운동 연구』와 확연히 구분되는 시각에서 구성되었으며, 많은 새로운 사실과 역사적 해석을 제시했다. 그러나 새로운 관점의 제시에 주력하다보니 응집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주목할 연구는 권보드래의 저작이다.¹⁹⁾ 그는 10년에 걸쳐 방대한 자료를 탐사하며 문화연구로서 3·1 운동사 서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한 서평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혼자 쓴 총서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폭 넓은 분야에 걸쳐 3·1 운동의 전개과정 속에서, 또 운동 전후의 역사 문화적 변화를 총괄했다.²⁰⁾ 시대적 변화와 세계 인식, 개인과 사회의 심성과 경험, 민중의 문화 세계에 걸쳐 폭넓은 주제들

16) 박헌호·류준필 편집, 『1919년 3월 1일에 묻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17) 국문학자에서는 권보드래, 이해령, 정종현 등의 연구, 역사학에서는 윤해동의 연구 등이 대표적인데, 권보드래는 2009년 이후 10여년에 걸쳐 다양한 3.1 운동 연구를 축적했다.

18)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 100주년기획위원회 엮음, 『3.1 운동 100년』, 후마니타스, 2019

19) 권보드래, 『3월 1일의 밤: 폭력의 세기에 꾸는 평화의 꿈』, 돌베개, 2019

20) 홍종욱, 「3월 1일의 밤은 대한민국의 봄이었다」, 『개념과 소통』 23, 2019

을 체계적으로 소화하고 있다.

한편 ‘촛불항쟁’의 경험을 주체의 다양성이라는 측면보다 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시민 주체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입장도 있다. 이런 입장에서는 3·1 운동은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을 형성하게 된 직접적 계기가 된다.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통해 <3·1 운동 - 대한민국 임시정부 -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적 정통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 이전부터 제기되었으나 촛불 항쟁 이후 더욱 강화된 3·1 혁명론 또한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²¹⁾

이런 시각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3·1 운동의 전개과정을 엄밀하게 실증적으로 재검토하여 사실 관계를 정리한 연구들도 등장했다. 박찬승의 『1919 : 대한민국의 첫 번째 봄』이 대표적인 저작인데, 3·1 운동 100년을 즈음하여 산출된 많은 연구까지 모두 정리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일목요연하게 운동의 실제 변화를 서술한 저작이다.²²⁾

맺음말

3·1 운동과 관련하여 가장 반가운 것은, 많은 연구 자료들이 새로 정리되고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구축한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samil/>)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3·1 운동을 좀 더 실증적으로 정리한 연구들도 출현하고 있다.

과거는 늘 새롭게 재해석됨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3·1 운동에 대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건이 역사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닐 뿐 아니라 현재적 의미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르게 구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100주년을 맞이하여 축적된 성과를 토대로 더 활발하고 창조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21) 「대답」, 이기훈 기획, 『촛불의 눈으로 3·1 운동을 보다』, 창작과 비평, 2019 참조

3·1 운동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김정인, 『오늘과 마주한 3·1 운동 : 민주주의의 눈으로 새롭게 읽다』, 책과 함께, 2018 참조

22) 박찬승, 『1919 : 대한민국의 첫 번째 봄』, 다산북스